

# 익산시, 15년 만에 도시브랜드 변경

###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GREAT) 익산'으로... 한문화 발상지 역사적 정체성 반영 '서동·선화' 도시 캐릭터 업그레이드... 보다 현대적이고 명쾌한 느낌으로 재탄생

익산시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15년 만에 도시브랜드(BI)를 변경했다. 익산시는 새로운 도시브랜드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GREAT) 익산'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제작된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GREAT) 익산'은 2009년부터 사용된 도시브랜드 '어메이징 익산'을 대체하게 된다.

신규 도시브랜드는 익산시가 꿈꾸는 미래와 찬란한 과거를 동시에 품고 있다. 시는 도시브랜드에 고조선과 마한, 백제로 이어지는 한(韓)문화 발상지 익산이 갖는 역사적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시는 결정 과정에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끝에 최종안을 선정했다. 한문화 발상지라는 위대한 역사를 통해 익산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렇게 완성된 도시브랜드는 위대한 도시 익산을 상징하는 그레이트의 'G'



를 중심으로 한다. 그 옆으로 녹색의 정원도시, 역사문화 관광도시에서의 휴식과 쉼을 상징하는 '원표(.)'가 들어가 있다. 전반적인 상상의 기운은 호남 교통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역동하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도시브랜드 변경과 함께 2006년부터 오랜 기간 사용해온 도시캐릭터 '서동·선화'도 새 옷을 입었다. 서동·선화 캐릭터는 보다 현대적이고 명쾌한

느낌으로 재탄생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변경된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를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홍보할 방침이다.

최근 입주를 마친 신청사 안에도 도시 브랜드를 적극 활용했으며, 도시 브랜드 홍보영상을 각종 행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이차전지 기술개발·인력 양성 '맞손'

### 국립군산대학교·대주전자재료, 업무협약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와 대주전자재료(회장 임무현)는 지난 15일 이차전지 공동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주전자재료 임무현 회장, 임종찬 부사장, 박현수 수석이사 참석했으며, 국립군산대 이장호 총장, 심중표 이차전지부트캠프 단장과 대주전자재료와 공동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이경구 첨단과학기술학부 교수, 장세명 기계공학부 교수, 이정호 전기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차전지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연계 음극재 관련 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연구 프로젝트 운영, 연구 프로젝트 성과물에 대한 권리 분배 및 활용,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코스닥 상장 회사인 대주전자재료는 1981년 설립한 전자 부품용 소재 생산 전문기업으로, 이차전지와 태양전지, 발광다이오드 등 에너지 산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이차전지용 실리연계 음극재를 상용 생산하고 있다.

2026년까지 총 2,045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산업단지 6공구 부지 약 18만㎡에 실리연계 음극재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음극재 사업분야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

### 22일~24일 전북대서 개최... 기업 23개사 참가

전 세계 경제인의 네트워크로 자리잡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대에서 열린다.

대운동장에 설치되는 기업전시관에는 식품, 자동차 부품, 기계장비 기업을 포함한 총 240개 회사가 참여한다. 군산시는 23개 기업이 참여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해외 구매자(바이어)들과 1대1로 사업 관련 회의를 할 수 있고 수출 상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은 구매자(바이어)들이 가진 세계적인 사업 유통망을 기반으로 한 수출 시장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성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전시관과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홍보부스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로 운영된다. 군산시 홍보부스에서는 CNN이 선정한 아시아의 숨은 명소 고군산군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기업전시관과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홍보부스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로 운영된다.

군산시 홍보부스에서는 CNN이 선정한 아시아의 숨은 명소 고군산군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 실시

군산시가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를 통해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16일 군산시 세무과는 매출 관내 소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 전원에게 취득세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시가 적극적으로 취득세 관련 홍보에 나선 이유는 △납세자들의 신고 납부 의무 인지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도 △납세자가 기한 내 미신고해 부과되는 가산세 부담 감소 때문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어경경우 무신고가산세 20%를 부과한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건물(가설 건축물 포함) 상속, 증축 및 토지 지목변경 시에도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미신고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납세자가 신고를 지연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 및 지목이 변경된 토지 자료에 대한 면밀한 조사 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케이엔에스,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 협약

### 약 1400평 부지에 34억원 투자... 공장 증설·제조 설비 투입

익산시가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케이엔에스와 34억원 규모의 익산공장 증설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명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사업본부장, 정경석 ㈜케이엔에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주)케이엔에스는 포장재 생산 품목 다각화와 통합 제조·생산공장 구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 증진을 꾀하고자 공장 증설을 결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케이엔에스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기존 공장 옆 부지 4,513㎡(약 1,400평)에 공장을 증설하고 제조 설비를 도입한다. 익산시의 전북자치도,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공장 증설은 연내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준공되면 1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경석 대표이사는 "이번 증설 투자로 포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매출을 늘려 나갈 것"이라며

"간편식과 편의식품 증가 등 변화하는 식품산업에 맞춰 포장 기술 개발도 끊임없이 도전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의 미래 먹거리인 식품산업 발전과 관련 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케이엔에스는 식품포장지전문기업으로 2021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고 약 5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축하면서 경기도 소재 본사와 생산설비를 이전했다.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함께 지역의 대표 포장 산업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 돌입

익산시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과의 전쟁에 돌입한다.

익산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2024년 체납 지방세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황석순 징수과장을 필두로 13명이 3개 반을 이루는 합동 징수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번 기간 58

억 원 규모의 체납 지방세를 정리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시는 상반기 일제 정리 기간 동안 96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현재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익산시 지방세 총 체납액은 23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고 재산세, 자동차세가 그 뒤를 잇는다. /익산=이재춘 기자

시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6%(38억 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체납세 징수를 위해 징수와 직원들과 읍면동 징수담당자로 이뤄진 합동 영치반을 편성한다.

합동 영치반은 매주 4회 번호관 영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 통

### 옛 익옥수리조합 건물

### 익산시민역사기록관으로

익산시민들의 기록을 한데 모아 추억을 공유하는 특별한 공간이 조성된다.

익산시는 평화동에 위치한 옛 익옥수리조합 건물을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이하 기록관)'으로 탈바꿈한다고 16일 밝혔다.

기록관은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지어진 옛 익옥수리조합 건물을 재단장해 만들어진다.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창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기록관은 익산의 변천사, 시민 생활사 등 도시와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주제로 꾸며진다.

우선 1층은 상설전시실과 보이는 수장고, 기증자를 위한 예우가 이뤄지는 명예의 전당, 안내실로 이뤄진다. 여기서는 기록관 조성 과정을 영상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층은 교육도시 익산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사 마련된다. 이와 함께 사무공간과 기록물 작업실,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다. 3층은 1930년대 당대 건축물의 흔적을 보이는 목조 트러스 구조의 지붕층을 보존한 것이 특징이다.

창고동에서는 내부에 설치된 사진 기계로 찍은 사진이 큰 화면으로 전송돼 몰입감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경비동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며 즐길 수 있는 기록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기록관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익산근대역사관과 익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송리문화극고, 인화동 근대역사문화공간과 연계하는 익산 근현대사 관광의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기록관 명칭에도 시민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지난 5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와 민간기록관리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이라는 이름이 확정됐다.

김형순 기획안전국장은 "기증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익산시민 누구나 저마다의 추억을 나누는 기록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록관을 잘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